

고려 건국의 과정 : 태조 왕건



1. 신라 하대의 혼란과 후삼국

1) 후백제의 성립

견훤이 백제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892년에 분립을 선언
900년(효공왕 4) 전주에 도읍하고 스스로 후백제왕을 칭함.

2) 후고구려의 성립

- 궁예

신라 제47대 헌안왕(憲安王)의 아들.

세달사(世達寺)의 중이 되었는데, 당시 이름은 선종(善宗).

그 뒤 주몽의 후예 즉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여 궁예弓裔라 자칭

- 반신라적 태도

고구려 유민들의 반신라적 감정을 이용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게 함

신라에서 항복해 오는 자는 모조리 죽임.

- 말기로 갈수록 성품이 포악해짐



관심법, 궁예질, 현대의 신조어와 유행을 만든다.



3) 궁예의 몰락과 고려 건국

- 궁예는 의심병이나 사치가 심해졌다.
- 궁예 휘하에 있던 왕건은 신뢰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다.
- 918년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 등이 왕건을 추대.
- 백성들도 호응하여 궁예를 축출 왕건이 고려 태조가 됨.

4) 왕건의 집안

- 왕건의 조부 작제건은 해외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해상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왕건의 아버지 용건과 왕건에 이르기까지 개성지역을 지배하고 세력을 유지했다.
- 진성여왕 10년(896)에 송악군을 바치고 궁예에게 귀부 : 궁예의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



2. 후삼국의 통일과 고려 건국

1) 궁예 평정과 고려건국

-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세웠지만 여전히 내부 호족세력의 저항이 있었다.
- 왕건은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섭정책을 써야 했다.

2) 신라 병합

- 태조 10년 9월, 견훤이 영천을 거쳐 경주를 기습하여 신라의 경애왕을 살해
- 신라는 점차 왕건 쪽으로 기울어갔다.
- 태조 18년(935년 11월)에 이르러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정
- 왕건은 경순왕과 신라 귀족을 후하게 대접 : 992년을 유지해 온 신라는 마침내 멸망



2. 후삼국의 통일과 고려 건국

1) 궁예 평정과 고려건국

-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세웠지만 여전히 내부 호족세력의 저항이 있었다.
- 왕건은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섭정책을 써야 했다.

2) 신라 병합

- 태조 10년 9월, 견훤이 영천을 거쳐 경주를 기습하여 신라의 경애왕을 살해
- 신라는 점차 왕건 쪽으로 기울어갔다.
- 태조 18년(935년 11월)에 이르러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정
- 왕건은 경순왕과 신라 귀족을 후하게 대접 : 992년을 유지해 온 신라는 마침내 멸망



3) 후백제의 멸망

- 후백제 역시 점차 붕괴의 징조.
- 왕건의 친신라 정책은 대세를 기울게 했다.

태조 18년 후백제의 붕괴를 촉진하는 내분 발생

: 태조 18년 견훤의 장자 신검神劍 등은 견훤을 金山寺(金堤郡)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건

A. 견훤이 제4자인 금강을 편애

: 왕위를 금강에게 물려주려 하였기 때문에 장자 신검이 아우인 양검·용검과 모의하여 일으킨 것

B. 견훤은 고려에 타협적 vs. 신검은 대고려 강경책

: 견훤이 그의 아들 신검·용검·양검에게

“후백제의 군사력이 고려에 비해 갑절이나 많으나 오히려 점차 불리해져 민심이 고려로 돌아가니 왕건에게 귀순하여 신변을 보전함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여 고려와 타협할 뜻을 비치자 능환, 신덕·영순 등이 견훤의 아들 신검·용검·양검과 모의하여 신검을 왕에 추대하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었다

=견훤은 유폐 3개월만에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부.



3. 후삼국 시대의 종료

- 왕건은 신검이 남아있는 후백제로 군사행동을 개시 : 병력 87500여 명
- 태조는 신검을 부추겨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킨 능환을 면대해 꾸짖었다.

“처음부터 양검과 공모하여 임금을 가두고 그 아들을 세운 것은 너희 짓이니 신하된 도리가 아니다”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9년 추9월 갑오).

후삼국 시대는 약 50년 만에 종료되고 통일시대 시작



태봉국도성도(泰封國都城圖)



철원 궁예 유적지 발굴 추진

국방부 관계자, 궁예 도성 인근 GP 현장 조사
 文대통령 DMZ 국제평화 지대 구상 일환인듯
 궁예도성, 군사분계선 놓고 남북에 걸쳐 있어
 北 발굴 참여 필수지만 남북관계 여전히 냉랭



[서울=뉴스시스]24일 정부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북한정책 관계자와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지난 주 철원 궁예 도성에 인접한 GP(감시초소)를 방문했다. 2019.11.24. (사진=유엔사 트위터)





고려 태조 왕건: 고구려 계승의식과 호족 관계



1. 왕건의 고구려 계승의식

1) 궁예의 고구려 계승의식

궁예는 정치적 목적에서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50, 열전(列傳) 50, 궁예(弓裔), 천복(天復) 원년 신유
지난날 신라는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으므로
옛 평양(平壤)의 구도읍은 내버려져 수풀이 우거지게 되었으니 내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세력이 강대해지고 후고구려 국호를 마진(摩震)·태봉(泰封)으로 변경

2) 왕건의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려는 북진정책
동족인 渤海의 유민을 받아 들여 후대하는 시책
고구려의 부흥을 위해 노력

«高麗史» 태조 원년 6월 병진조

“태조(太祖)가 포정전(布政殿)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천수(天授)로 연호를 고쳤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 271, 양(梁) 군왕(鈞王) 용덕(龍德) 2년 12월

“태봉왕(太封王) 궁예(躬父)는 성격이 잔인하여 해군통수(海軍統帥) 왕건이 그를 죽이고 자립하면서 다시 고려왕을 칭하였다”

2. 왕건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측면

고구려 옛 땅에 대한 관심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9월 병신
태조가 즉위하던 해 9월에 군신에게 평양에 대한 관심을 아래와 같이 표하였다.
평양(平壤) 옛 서울이 황폐되어 비록 오래 지났더라도 그 터는 여전히 남아 있다.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5년 5월 갑신
요즈음 서경(西京)을 온전히 증축하여 민가를 옮기고 충실히 한 것은
그 지방이 지닌 힘에 기대어 삼한(三韓)을 평정하기 위함이다. 장차 거기에 도읍하고자 한다.

발해 유민에 대한 예우와 거란에 대한 증오감

-만부교의 낙타 사건

-<<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5년 동10월
거란(契丹)이 일찍이 발해와 화친하였으면서도 맹서를 배반하고 이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것이다.



3. 고려의 집권층과 호족

1) 고려 왕실은 호족의 협조 없이는 유지가 어려웠다? 호족연합정권설

- **호족**: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불리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 병력과 관부를 가지고 지방민을 통치
- 고려 성립 이후로도 독자 세력을 유지했고, 중앙정부는 이들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 호족들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 중앙정부가 지방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
- 태조의 혼인정책: 29명의 후비를 둔 것은 호족들과의 결합을 위한 정책
-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 중앙정부에서 호족 자제를 볼모로 잡은 것이 아니라

호족이 중앙정부의 후광을 필요로 지방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호족연합정권설에서는 태조가 고려건국 이후로도 호족세력보다 힘이 약했다고 본다.

(광종대 왕권강화 이후에 개선)



2) 과연 왕건이 호족세력보다 미약했을까?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반박

- 호족들이 귀부하는 것은 국왕과의 군신적 상하관계 성립을 의미한다.

: 지방호족들이 자신의 향토와 인민의 보전을 위해 스스로 고려에 귀부하였던 것.

- 호족세력보다는 태조의 왕권이 훨씬 우위에 있었다.

: 태조는 중앙이나 지방 호족에게 관직을 수여했고,

호족들에게 벌을 주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음격 강등)



2) 과연 왕건이 호족세력보다 미약했을까?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반박

- 태조의 혼인은 과연 전국 각지 유력호족과의 결속을 위한 것이었나?

:29명의 후비 중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는 26명을 조사해 보면
고려 11개 지역에 18명, 후백제 2개 지역에 2명, 신라 4개 지역에 6명

호족들이 중앙에서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왕실과의 통혼을 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실제로 장화왕후 나주 오씨에게서는 왕건이 후사를 보지 않으려 했고,
대서원부인 김씨와 소서원부인 김씨는 태조와 혼인했음에도 태조가 찾아오지 않아 여승이 되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 : 왕건왕릉 전경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전라남도 나주 완사천의 기념비와 동상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1. 고려 중엽 인종대의 서경천도운동

-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과 난

: 묘청, 정지상, 백수한 등이 주축.

: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리도참설地理圖讖說을 근거로 수도를 개경開京에서 서경西京으로 옮길 것을 주장

- 국내정세의 위기

: 실권을 휘둘렀던 이자겸의 난. 정치적 혼란

- 국제정세의 변화

: 당시 중국 지역에서 금나라가 일어나서,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宋나라를 압박해서 북송시대를 마감



1) 대외관계와 서경천도운동의 관계

• 요, 송의 변화

10세기 중엽 요, 송, 고려가 삼각구도를 형성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여진족을 통해 금나라가 일어나게 되면서 변화

금의 강력한 공격 끝에 요나라는 멸망(인종 3년, 1125)

송나라의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황제는 포로로 붙잡힌 채

왕족과 신료들은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나 북송 시대 마감(인종 5년, 1127).

•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

고려 인종대에 들어와서는 금나라가 고려를 크게 압박

금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 표를 올려 칭신함으로써 금과의 사대관계事大關係(인종 4년, 1126)

*일러스트: 왜 묘청은 서경천도를 주장했을까? 38쪽.



1) 대외관계와 서경천도운동의 관계

-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

고려 인종대에 들어 금나라가 고려를 압박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칭신함으로써 금과의 사대관계(인종 4년, 1126)

- **묘청 일파가 서경천도를 주장**

:개성은 지기가 쇠약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서경천도를 주장

“(서경 임원역지에) 만약 궁궐을 짓고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하고,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해 오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2) 서경천도운동의 경과 : 인종 5년부터 인종 13년에 걸쳐서 긴 시간동안 진행

(1) 인종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2년간:

천도운동은 급속한 진전. 서경에 새 궁궐이 축조됨으로써 기초가 확립.

(2) 인종 8년 8월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1년 6개월간:

천도의 움직임 자체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 노력.

(3) 인종 10년 2월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3년간:

천도운동 주도자들이 성사시키려 하다가 반대세력에 밀려 후퇴.

(4) 인종 13년 1월 묘청난의 발생과 진압까지 1년 1개월간:

서경천도운동은 결국 반란으로 종결.



(1) 인종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2년간:

- 인종 7년, 서경에 새 궁궐인 대화궁大花宮이 축조.
- 인종은 새 궁궐인 건룡전乾龍殿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7년에 신궁(新宮)이 완성되어 왕이 또 서경(西京)에 행차하니
묘청(妙淸)의 무리가 혹은 상표(上表)하여 왕이 칭제(稱帝)하여 건원(建元)하기를 권하며
혹은 유제(劉齊)와 약속하고 금(金)을 협공(挾攻)하여 이를 멸(滅)할 것을 청하니
식자(識者)들이 다 불가라 하므로 묘청(妙淸)의 무리가 쉬지 않고 말하기를 마지않았으나
왕이 끝내 듣지 않았다.

왕이 신궁(新宮)인 건룡전(乾龍殿)에 거동하여 군신(群臣)의 하례(賀禮)를 받으니
묘청(妙淸), 백수한(白壽翰), 정지상(鄭知常) 등이 말하기를,

**"바야흐로 주상(主上)이 전(殿)에 앉으시매 공중(空中)에서 풍악소리가 들리니
이것이 어찌 신궐(新闕)에 거동한 상서(祥瑞)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하표(賀表)를 초(草)하여 재추(宰樞)에게 서명(署名)하기를 청하니
재추(宰樞)가 이에 응(應)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늙었으나 아직 귀는 먹지 않았는데 공중(空中)의 풍악은 일찍이 듣지 못한 바니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늘은 속이지 못할 것이다."**

하니 정지상(鄭知常)이 성내며 말하기를,

**"이것은 비상(非常)한 가서(嘉瑞)이니 청사(靑史)에 써서 후래(後來)에 보임이 마땅하거늘
대신(大臣)이 이같이 하니 가(可)히 깊이 탄식하겠도다."**

하고 표(表)는 끝내 올리지 못하였다.



(2) 인종 8년 8월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1년 6개월간:

- 인종 8년 8월에 왕의 제5차 서경 행차가 이루어져 2개월간 머물렀다.
- 천도운동에 큰 진전은 없었지만 지리도참의 비술秘術이나 종교적 신상神像의 설치를 통해 주목을 끌었다.

-팔성당에 명산의 수호신, 호국신, 부처를 배합한 성상을 봉안
-태일옥장보법太一玉帳步法'이라는 술법을 펼침

10년에 비로소 서울 궁궐(宮闕)을 수축하면서 평장사(平章事) 최홍재(崔弘宰) 및 문공인(文公仁) 임경청(林景淸)이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되었다.
기초(基礎)를 열매 미쳐 묘청(妙淸)이 최홍재(崔弘宰) 등 및 역사(役事)를 담당한 관원에게 모두 공복(公服)을 입고 차례로 서게 하고 장군(將軍) 4인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사방에 서게 하고 군사 120명은 창(槍)을 들고 300명은 횃불을 들고 20명은 촛불을 들어 둘러서게 하고 묘청(妙淸)은 가운데서 길이가 360보(步)나 되는 백마(白麻) 끈 네 가닥을 사방(四方)에서 당겨 법(法)을 짓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태일옥장보법(太一玉帳步法)인데 선사(禪師) 도선(道詵)이 이를 강정화(康靖和)에게 전수하였고 강정화(康靖和)가 나에게 전하였는데 내가 늙으면 백수한(白壽翰)에게 이를 전수하리니 여러 사람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3) 인종 10년 2월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3년간:

- 천도운동 주도자들이 성사시키려 하다가 반대세력에 밀려 후퇴.
- 왕이 행차하였을 때 묘청 일파는 칭제건원과 금국정벌론을 중요하거 거론했다.

서경(西京)에 행차하는데 금암역(金巖驛)에 이르자 풍우(風雨)가 갑자기 일어나서
낮이 문득 어두컴컴하므로 위사(衛士)가 엎어지고 자빠지며
왕은 고비를 잡은 채 길을 잃어 혹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혹 나무등걸과 돌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시종(侍從)들은 왕의 간 곳을 잃어 궁인(宮人)이 혹 우는 자도 있었다.
일모(日暮)에는 눈보라로 추위가 심하여 인마(人馬)와 낙타(駱駝)가 죽은 것이 많았다.
묘청(妙淸)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이 날에 풍우(風雨)가 있을 줄 알고 우사(雨師) 풍백(風伯)에게
임금의 행차가 길에 오를 것이니 풍우(風雨)를 짓지 말라 하였던 바 이미 허락하더니
식언(食言)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매우 가증(可憎)하다.”



신룡이 침을 토했다?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다고 주장한 사건

서경(西京)의 노부(老父) 검교 태사(檢校太師)로 치사(致仕)한 이제정(李齊挺) 등 50인도 묘청(妙淸)과 정지상(鄭知常)의 뜻에 맞추어 상표(上表)하여 존호(尊號)를 칭하고 건원(建元)하기를 청하니 정지상(鄭知常) 등이 인하여 왕을 설유(說諭)하여 말하기를, “대동강(大同江)에 서기(瑞氣)가 있으니 이는 신룡(神龍)이 침을 토한 것입니다. 천재(千載)에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 바라건대 위로 천심(天心)에 응(應)하고 아래로 인망(人望)을 따라 써 금국(金國)을 누르소서.”

하니 왕이 그리하여 이지저(李之)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금국(金國)은 강적(強敵)이라 가볍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양부(兩府)의 대신(大臣)들이 상도(上都)에 유수(留守)하고 있는데 1,2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서는 대의(大議)를 결단치 못할 것입니다.”

하므로 왕이 이에 그쳤다.

묘청(妙淸), 백수한(白壽翰) 등이 일찍이 비밀히 큰 떡을 만들어 그 속을 비게 하여 구멍을 뚫고 숙유(熟油)를 넣어 대동강(大同江)에 잠그니 기름이 점점 나와 수면(水面)에 뜨므로 바라보니 오색 빛깔 같은 지라 인해 말하기를,

“신룡(神龍)이 침을 토(吐)하여 오색 구름을 만들었으니 이는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하고 백관(百官)에게 표하(表賀)하기를 청하거늘

왕이 문공인(文公仁) 및 참지정사(知政事) 이준양(李俊陽) 등을 보내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때에 유침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기름[熟油]이 물에 뜨면 이상한 빛이 난다.”

하므로 잘 헤엄치는 자를 시켜 큰 떡을 찾아내어 곧 그 속임을 알았다.



(3) 인종 10년 2월의 서경 행차로부터 약 3년간:

- 정지상은 국왕을 오래 서경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인종은 3개월 머물고 돌아감.
- 대신 그해 11월에 묘청 등의 요청에 따라 대화궁에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어의御衣를 놓았다.
:왕이 직접 머무르는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복(福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김.
- 점차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묘청 일파의 억지스러운 속성이 드러났고,
이것은 유교적 합리성으로 무장한 다수 신료들의 비판적 주장으로 기울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4) 인종 13년 1월 묘청난의 발생과 진압까지 1년 1개월간:

- 서경천도운동이 뜻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묘청이 서경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킴
- 묘청은 일파의 백수한, 정지상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서경에서 유참, 조광趙匡과 더불어 반란.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반란군대의 이름은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
- 조정에서는 김부식을 필두로 토벌군 편성
- 반란군 중 조광이 묘청을 죽여 투항하려다가 처벌이 두려워 반란을 지속.
:발생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인종 14년 2월에 진압



(4) 인종 13년 1월 묘청난의 발생과 진압까지 1년 1개월간:

- 서경천도운동이 뜻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묘청이 서경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킴
- 묘청은 일파의 백수한, 정지상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서경에서 유참, 조광趙匡과 더불어 반란.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반란군대의 이름은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

- 조정에서는 김부식을 필두로 토벌군 편성
- 반란군 중 조광이 묘청을 죽여 투항하려다가 처벌이 두려워 반란을 지속.

:발생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인종 14년 2월에 진압



2. 서경천도운동의 의미와 한계

- 의미

칭제건원稱帝建元과 금국정벌國征伐을 주장.

뚜렷한 국제관 또는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계

칭제건원이나 금국정벌은 비현실적이거나 실체가 모호.

금국정벌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고려의 국력이나 군사력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를 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